

# 사유의

# 형태들 2023

2023. 6. 24. Sat - 8. 27. Sun

복합문화공간 웃다리문화촌

평택시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The Forms of Thought 2023

기후위기 시대에 쓰레기로 낙인된 물질은  
작가의 상상력을 거쳐 예술적 생명을 갖는다



- 김동인 Kim Dong In      윤진섭 Yoon Jin Sup
- 김준혁 Kim Junhyuck    이명환 Myung Hwan Lee
- 김지용 Jiyong Kim      이우재 Lee Woo Jai
- 뉴탭-22 Newtab-22      이혜수 Hyesoo Lee
- 라디오비 Radiob        임성묵 Lim Sungmook
- 박근용 Park Geun Yong   정현철 Jung Hyunchul
- 백윤호 Baek Yun Ho     포리 심 Fori Sim
- 위캔드랩 WKND Lab

<사유의 형태들 2023>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조명한다. 세계 인구의 증가와 인간의 자원 소비가 상승함에 따라 방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은 지구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경고하며 인간의 생존 문제 또한 뚜렷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단순히 거듭되는 주제가 아닌 인류가 실천해야 할 긴급한 메시지로 부각된다.

예술은 인류 역사와 함께 의사소통, 표현, 연결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생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17명의 예술가들이 다양한 매체와 그들만의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 과정속에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삶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작가들은 일상에서 폐기되는 자원을 재료로 삼아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작업에 접목하고, 적극적인 실행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주제를 작품을 통해 전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자원 낭비 감소,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환경 지속성의 자원보존을 통한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어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예술가들은 버려지는 자원을 차별화된 시각으로 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끊임없는 탐구와 연구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적용한 작품은 예술과 환경보호, 지속가능성이 결합된 중요한 접점의 결과이다. 이들의 다양한 메시지가 예술과 환경의 경계를 무한히 확장시키며,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사유’는 인간의 관점과 가치 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사유(思惟)’하는 과정속에서 나타난 창의적 ‘형태(形態)’의 결과물은 우리에게 자원의 사용자로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성찰하게 한다.

김동인의 <결함(結菡/맺을 결, 꽃봉오리 함)Series>는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도자 제작 과정 중 사라지는 석고 몰드 분할 선을 남겨 새로운 쓸모를 더하고, 연탄재의 51%를 활용해 분리가 가능한 틀을 제작해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미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김준혁의 <소멸:소생>은 인간의 필요로 베어낸 숲에서 탄생한 책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문명 앞의 먼지 속에 소멸을 다한다. 책들은 나무의 형태로 표현되어 숲을 이뤘다. 인간에 의해 숲은 사라지지만 그 피해자는 결국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지용의 <RE-UP 13>은 한국 전통 규방 공예인 조각보가 담고 있는 새 활용의 가치를 재해석했다. 폐현수막과 방수 천막 등을 원단의 형식으로 활용해 공예의 쓰임에 대한 영역을 확장한다.

뉴탭-22의 <Sea Stone Mini Incense Tray>는 패각을 점토와 같은 소재로 개발해 새로운 쓰임을 부여했다. 친환경적 공법을 접목하여 폐기 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환경과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한다.

라디오비의 <Chair 9.40 hours>는 페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새로운 쓰임과 가치를 부여했다. 재활용이 어떠한 창의력과 미적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작품에 담긴 시간의 의미는 첨단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박근용의 <이젠, 더 이상 진실을 덮지 마시오.>는 버려진 폐간판을 재구성하여 설치된 작품이다. 개인과 사회의 이면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은폐된 진실에 대한 관심을 가치 있는 기억으로 전환하는 시도이다.

백운호의 <Siberian Tiger>는 페나무 조각을 재료로 멸종된 호랑이의 용맹한 모습을 재현하였다. 금방이라도 숨 쉴 듯한 호랑이의 이면에는 인간에 의해 터전을 잃은 동물들의 현실이 투영되어 있다.

위켄드랩의 <Oygg>는 버려지는 난각과 패각이 재사용되어 새로운 오브제로 탄생했다. 작품은 인간의 과식과 욕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낭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가치 전환을 추구한다.

윤진섭의 <생태-환경 이야기1>은 인간을 주제로 즉발적으로 휘갈긴 드로잉 작품과 일상의 오브제로 제작된 입체 작품들로 황폐한 자연환경에서 고통받는 현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생태-환경 이야기2>는 옷다리문화촌 야외 고목을 활용한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으로 작가가 제작한 페비닐 공과 관람객이 만든 페비닐 공에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적어 고목에 설치한다. 그것은 제 3자적 시선에서 바라보며 감상하는 소극적 형태의 예술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적극적 형태의 예술로 변화하게 한다.

이명환의 <원형 회전 자전거>는 자전하는 지구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이 참여하여 움직임을 만든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구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폐자원을 활용한 오브제 내면에는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다.

이우재의 <PaperBricks\_Pallet\_Bench>는 재활용된 신문의 물성을 탐구하고 잠재력을 찾아낸 작품으로 우리 일상에 스며든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되살리며, 불완전함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이혜수의 <Falling in\_\_\_\_\_2>은 산업화를 상징하는 플라스틱 자투리 조각을 한국의 전통 기법인 조각보에 적용해 정크 아트를 시도했다. 모빌 형태의 설치물로 작가의 어린 시절과 현재를 이어주며, 빛이 투과되어 맺히는 상들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린 시절 순수함을 상징한다.

임성목의 <Arch Series\_Display Table>은 쇼핑백 제작 부산물을 새로운 소재로 개발해 로스 제로를 실천한 작업이다. 전통 가구인 사방탁자의 형태로 표현된 가구는 보는 이들과 사용하는 이들 모두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일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시도이다.

정현철의 <Animal Series\_파란 거북>은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쌓인 거대한 택배 상자를 재료로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소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작품에 담으며, 일회용품 사용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을 동물들의 이미지를 통해 상기시킨다.

포리 심의 <잠시 쉬다(Take a break)>는 버려진 스피커를 로봇의 형태를 빌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 다양한 색감과 귀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작품은 ‘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다.

## 프로그램

### <관람자 참여형 전시>

전시장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참여예술

#### 참여예술 1

6월 24일(토)-8월 27일(일), SPACE 1 전시실

페비닐로 제작한 작품에 환경 메시지를 적어

야외 고목에 설치

윤진섭

#### 참여예술 2

6월 24일(토)-8월 27일(일), SPACE 2 전시실

캔버스에 폐재료를 콜라주하기

포리 심

#### 참여예술 3

6월 24일(토)-8월 27일(일), SPACE 4/7 전시실

쓰레기로 그리는 환경 이야기

### <전시연계 프로그램>

관람객이 작가와 만나 예술로 소통하며 참여

#### 오프닝

6월 28일(수) 11:00, 웃다리문화촌

오프닝 세레머니

윤진섭 작가와 해솔어린이집·동삭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웃다리문화촌 고목에 페비닐공 매달기

#### 아티스트 토크

7월 21일(금) 15:00-17:00, SPACE 7 전시실

작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시간

뉴탭-22, 라디오비, 위켄드랩

#### 워크숍

8월 12일(토)

1회\_11:00-12:00, SPACE 2 전시실

폐전자제품을 사용해 작품 만들기

포리 심

8월 19일(토)

2회\_14:00-15:00, SPACE 1 전시실

놀이의 형태로 풀어낸 예술 활동

윤진섭



<결함(結藩/맺을 결, 꽃봉오리 함)Series> porcelain, slip casting, 가변크기, 2021

작가는 재료가 아닌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도자 제작 과정 중 슬립 캐스팅(slip casting)의 페들링(fettling)에 주목했다. 페들링은 석고 몰드의 분할선(parting line)에 의해 기물표면에 생긴 틀 자국을 다듬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틀 자국은 여분의 점토가 되어 버려지게 된다.

일반적인 석고 몰드는 탈형의 효율을 위해 언더컷(undercut)<sup>1</sup>을 기준으로 분할된다. 그러나 작업의 효율이라는 기능적 몰드 분할에 국한되지 않고, 장식적 몰드 분할까지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틀 자국은 버려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게 된다.

작업은 '2022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위너'로 선정되었고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발전시키고 있다.

버려지는 연탄재가 주성분이 되도록 함량을 51%까지 활용하여 분리가 가능한 틀을 제작함으로써 쓸모를 잃은 것들의 쓸모를 찾아 영구적으로 간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버려지는 것에 대한 미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sup>1</sup> 언더컷(undercut) : 몰드로부터 분리하거나 빼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형의 부위



<소멸·소생> 현책, 풀딩 기법, 900x600x120cm, 2018

세상은 빠르게 변해간다. 원하는 지식을 책이 아닌 인터넷에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더 빠르고 더 방대하고 도무지 경계를 찾아볼 수 없이 쏟아내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먼지 속에서 그 소명을 다하는 책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있다.

문명의 산물이기도 한 책의 원료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인간의 필요로 베어져 나가는 숲!! 그 속에서 종이로 탄생하는 나무의 숨결을 만져본다. 종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쉽게 버려지기도 한다. 버려지는 책을 원래의 자리로 다시 되돌린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숲은 소멸되지만 결국

사라진 숲의 최종 피해자는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시대는 오래 사용하고 고쳐 쓰기보다는 쉽게 버리고 새것으로 사는 인스턴트 문화가 더 편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작업을 통해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습관과 삶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길 바라고 있다.



<RE-UP 13> 폐현수막, 잉여 방수천막, 리사이클 다운, 타이벡, 재봉, 70x11cm, 2022

작가는 섬유 공예를 기반으로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작업에 주된 관심을 가진 공예가이다.

작가는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현대사회의 환경문제나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공예에 접목시키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 문제와 공예 작가로서의 연관성을 탐구하며, 버려지는 한복 자투리 천을 자르고 이어 붙여 새로운 쓰임을 부여받는 '조각보'에서 그 가치를 발견했다.

작가는 한국 전통의 규방 공예인 조각보가 담고 있는 새 활용의 가치를 재해석 하여 공예의 쓰임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작품은 SNS를 통해 13명에게 기부 받은 리사이클 다운(페이류, 침구류 등의 충전재)과 버려지는 폐현수막, 방수 천막 등을 재활용하여 탄생한다. 실제 버려지는 타폴린, 폐현수막, 스트랩 등과 친환경 소재인 타이벡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예 작품부터 상품까지 만들어 낸다.





<Sea Stone Mini Incense Tray> 패각, 미네랄, 천연바인더,  
20x85x2cm, 2021

국내 연간 300만 톤, 전 세계 약 7만 톤의 조개 껍데기가 버려지고 있다. 패각은 오랫동안 해변 근처에서 방치되어 주변을 오염시키고, 악취로 인해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버려진 조개껍데기의 여정 'Sea Stone'은 패각에 탄산칼슘이 90% 함유된 점을 착안해 굴, 홍합, 전복 껍데기를 모아 직접 씻고, 분쇄 등의 과정을 거쳐 점토와 같은 소재로 개발하여 새로운 쓰임을 부여했다.

바다에서 나온 천연소재 본연의 텍스처를 극대화하고 반짝거리는 전복의 진주층이

흘뿌려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패턴, 유니크한 피스를 전달한다. 작품은 패각 100%, 미네랄 흙, 모래 등 자연재료와 재활용 소재 활용으로 스톤 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표면이 특징이다.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과정 또한 열, 전기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해 환경을 생각했다. 친환경적 공법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폐기 시 비료처럼 자연으로 돌아간다.

작가의 작업은 생활에서 버려지는 소재와 자연 소재를 사용하면서 재해석하고 확장하며, 환경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제시한다.



<Chair 9.40 hours> waste plastic with 3D printing.  
35x47x85cm, 2023

작가는 플라스틱이라는 변형적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 폐플라스틱을 다시(RE:) 사용한다. 분해되는데 약 500년이 걸리는 플라스틱을 5시간만의 3D 프린팅으로 일상의 물건을 제작하여 업사이클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달한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Stool 8.20 hours>와 <Chair 9.40 hours>는 각각 8시간 20분, 9시간 40분의 출력시간을 거쳐 제작된다. FDM(적층방식) 방식으로 한층 한층 레이어가 쌓여감에 따라 제작된 의자는 업사이클 3D 프린팅만의 독특한 느낌을 갖고 있다.

구불구불한 라인의 디자인은 얇은 선만으로 의자의 기능적 구조를 이룰 수 있으며, 좌우 측면의 다른 형태가 이어진 구조를 통해 새로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Stool 3.50, 5.32>는 버려진 배너(간판)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일상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배너는 의자의 좌판이 되어 우리에게 유용한 가구로 재탄생될 수 있다.



<이젠, 더 이상 진실을 덮지 마시오> 폐간판, 방수포, 물, 리니어 액추레이터, 가변설치, 2023

작가는 거리의 무수히 많은 간판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통해 자연 또는 사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재해석한 방식에 주목했다.

네온으로 반짝이는 간판들 중에서 ‘진’과 ‘실’이라는 특정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작가는 상상의 과정을 거쳐 “이젠, 더 이상 진실을 덮지 마시오.”라는 문장으로 완성된다. 이것은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만연해있는 ‘진실 덮기’를 고발하는 작업이다.

이 설치 작품은 수집한 폐간판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실재의 삶에 기인하는 개인 인간사의 이면이나 사회·문화·환경적 단면에 대한 근원적 질문 그리고 참과 거짓이 부유하는 개인과 사회 이면을 거침없이 노출하고 파헤친다. 작품은 은폐되거나 엄폐된 진실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기억의 가치로 치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Siberian Tiger> wood, 소조, 320x100x125cm, 2016

흙 작업만 해오던 작가는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한 흙 속에 감춰진 각목 조각을 바라보면서 살아 숨 쉬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보여주고자, 각목 작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작가는 사용할 수 없는 나무 조각으로 마치 흙 작업을 하듯 손의 터치가 느껴지게 표현하면서 조형성이 풍부하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동물들을 제작하였다.

동물을 주제로 작업한 작품들은 흔히 볼 수 없었던 야생동물들과 친근한 동물들을 형상화하였다.

작품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며,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자 한다.



<Oygg> 달걀 껍데기, 업사이클링, 10,3x10x19,3cm, 2023

Oygg 시리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폐기되는 난각(달걀 껍질)과 통영에서 받아들인 패각(굴 껍질)을 사용하여 제작된 프로젝트이다.

작업 공간 옆에는 젤라토를 만드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우유가 아닌 달걀을 베이스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가게이다. 이 과정에서 매주 다량의 달걀이 소비되고, 그만큼의 껍데기가 버려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프로젝트의 계기가 되었다. 패각 또한 자연물이라 환경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통영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인 상황이다. 매년 15만 톤의 껍데기가 발생하는데, 이 중 처치가

곤란한 양은 3.5만 톤에 이른다. 인간의 과식과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과 쉽게 잊혀지고 경시되는 버려지는 자원들에 대한 관점과 가치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난각과 패각을 구성하는 게  $CaCO_3$ 라는 것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오이그 시리즈는 자연물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자연이 그러하듯 제품의 색상, 패턴이 다르고 각기 다르다는 점이 큰 특징이며 난각은 주황빛, 패각은 은은한 회청 빛을 띠고 있어서, 이를 활용해 질감을 내면 모든 피스가 각기 다른 모양과 색을 지닌다.



<생태-환경 이야기2> 페비닐, 테이프,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3  
(좌)사유의 형태들 2023 <생태-환경이야기2> 설치 전경  
(우)2022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출품작 설치 전경

이 작품의 기원은 2018년 7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집으로 배달돼 오는 카탈로그, 엽서, 신문 및 각종 우편물의 봉투가 언제부터인지 종이에서 비닐로 바뀌었다. 그래서 페비닐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이를 재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신문에 의하면 비닐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 20~400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공처럼 뭉친 페비닐에 환경오염과 지구촌의 의제로 떠오른 생태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쓰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2018년 이후-Y씨의 페비닐 봉투 모으기 작업>이란 제목은 성능경 선생의 신문 모으기 작품 <1964년 6월 1일 이후>를 약간 바꾼 것이고 Y씨를 지칭한 것은 역시 성능경 선생의 <S씨의 반평생>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 작업은 평생을 전위작업으로 일관한 성능경 선생에 대한 오마주입니다-Y씨가.

작품은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으로 작가가 제작한 페비닐 공과 관람객이 참여하여 만든 페비닐 공을 고목에 설치한다. 그것은 제3자적 시선에서 바라보며 감상하는 소극적 형태의 예술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적극적 형태의 예술로 변화하게 한다.

인간과 자연을 주제로 한 드로잉 작품들은 황폐한 자연환경에서 고통받는 현 인류의 모습을 즉발적으로 휘갈긴 선묘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진다. 이들은 일상적 오브제들로 제작된 입체 작품들과 연계돼 전체적으로 통합된 양상을 띠게 된다.



<원형 회전 자전거> 외발자전거 오브제, 강철 원형 프레임,  
직경 170x70cm, 2017-2020

이 작업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이론을 주장한 근거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라는 동요 <앞으로>의 가사에서 착안하여 제작된 오브제이다.

작품은 글로벌의 영원한 평화적 염원이다. 지구의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관련 환경문제와 다양한 이념적 분쟁 등을 비롯한 강력한 유행병 등을 모티브로한 작품을 구상하였다.

지구의 형태이기도 한 '원'은 평면 위에 고정된 한 꼭짓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회전한다고 정의한다.

작가는 원과 자전하는 지구를 접목하여 <원형 회전 자전거>를 만들었다. 페달에 힘을 가하면 반시계방향으로 끝없이 회전하여 잡지 못하는 개념을 담고 있어 방랑모험(Odyssey)을 즐길 수 있는 상호작용적 (Interactive) 작품을 구상하였다.

그것은 어떤 이유로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 폐자원 외발자전거로 제작된 작품으로 4개의 바퀴가 사용되었다.

폐자원을 활용한 작품의 내면에는 글로벌 사회의 무분별한 발전과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PaperBricks\_Pallet Bench> recycled newspapers, 30x90x40cm, 2016  
<PaperBricks\_Pallet LowTable> recycled newspapers, 30x60x30cm, 2016  
<PaperBricks\_Pallet LowTable> recycled newspapers, 30x60x30cm, 2016

어떻게 하면 종이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탐구로 시작됐다. 종이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버려지는 재료 중 하나이다. 작가는 관찰을 통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잊혀져간 것들에 대한 인식을 되돌리고자 한다.

오래된 신문지, 벽돌 벽의 갈라진 틈, 공간 모서리 등 평범함 속에 숨겨진 잠재력을 찾는다. 작가의 작품에서 재료, 형태, 그리고 이야기로서 영감을 주며 작품들은 특별하지 않은 불완전함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작업은 재료의 물성을 중심으로 한다. 'paperbricks'는 재활용된 신문지로 만들어졌다. 진짜 벽돌처럼 단단하지만 더 가볍다. 마블링된 대리석과 같은 비주얼을 지녔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종이의 촉감도 지니고 있다. 'paperbricks'를 직접 만져보면 부드러운 섬유와 같은 감촉을 느낄 수 있다.

<PaperBricks Pallet Series>는 'paperbricks'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구 시리즈이다.





<Falling in...2> 자투리 아크릴, 가변설치, 2021

한국의 독특한 간판 문화는 다량의 자투리 아크릴을 발생시킨다. 버려진 정형과 비정형의 조각들은 현대미술의 소재로써 재탄생한다.

한 번은 만들어 봤음 직한 모빌. 그보다 더 이전에 누워있기만 했던 신생아 시절 첫 장난감으로 만났던 모빌이다. 작품은 '현재의 나'와 '어린 나'를 이어준다. 크고 작은 요소들은 삶의 순간들을 의미하며, 여러 조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한다. 작품 본체를 통과하여 벽과 바닥에 맺힌 상들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향한다.

산업화를 상징하는 플라스틱 자투리 조각을 한국의 전통 기법인 조각보에 적용하여 한국적인 정크 아트를 시도했다. 의도하지 않은 형형색색의 자투리 조각들을 비구상 소재로 사용하고 드로잉을 더 하여 메시지를 시각화했다. 작품은 작품 자체와 더불어 공간의 빛, 그림자, 바람 등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복합적인 구성요소들을 통해 노스텔지어를 구현하였다.



<Arch Series\_Display Table> plastic marble, joint, bonding.  
71x43x64.5cm, 2022

‘10년 후에도 우리에게 바른 가치’를 만들기 위해, 4가지 요소(창작자/생산자/사용자/환경)의 순환을 고려한 작업과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보는 이들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사용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멋진 일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자 한다.

플라스틱 마블(plastic marble)은 다회용 친환경 가방 제작 후 남은 부산물(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재활용하여 로스 제로(loss zero)를 위한 업사이클 소재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플라스틱 마블로 만들어진 가구는 단순히 기존의 구조와 방식에서 소재만 바꾼 것이 아니다. 소재의 특징에 맞는 구조와 가공을 통해 새로운 형식과 스타일을 선보이며,



<Animal Series, 파란 거북> 택배상자, 접착제, 40x29x30cm, 2021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할 자유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망설이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작'이라는 단어의 뒷면에 존재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망설이고, 두렵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파란 거북이 알'이 용기를 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을 '시작' 하십시오.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로 난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상황을 인식하는 관점이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피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작가는 업사이클링 작품으로 <Amimal Series>를 제작하였다.

인간은 지구라는 혹성에 사는 수많은 생명체 중 한 종류의 생명체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지구의 운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작가의 작품은 시작한다. 다양한 동물들을 작품의 주제로 등장시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임을 작가는 외치고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조금은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잠시 쉬다(Take a break)> 혼합매체, 페소제, mixed media, 높이 43cm, 2016

세상에 탄생한 많은 물질들은 쓰임과 버려짐을 반복한다. 작업은 이러한 버려지는 것들에게 '작품'이라는 새로운 삶을 부여하여 사람 곁에 머물게 한다. 한때 전자제품, 장난감 등에 쓰였던 폐부품들은 생명력 있는 로봇 형태의 오브제로 다시 제작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학습에 의해 인간은 로봇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버려진 소재가 로봇의 형태를 빌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 다양한 색감과 귀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작품은

'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는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버리는 과정에 '창작'의 도구를 가지고 인간에게 버려졌던 오브제들도 인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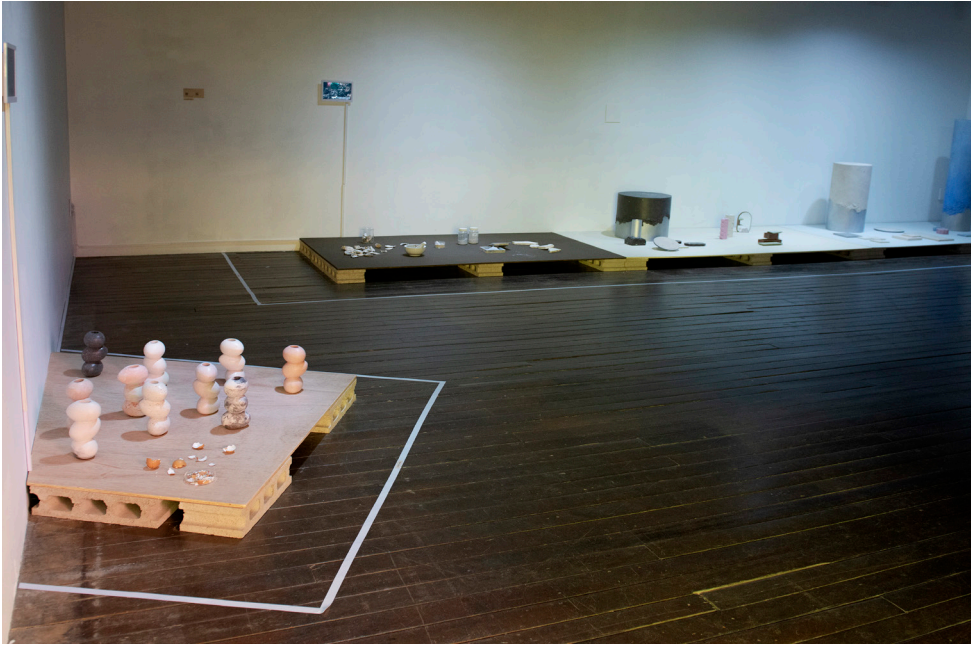
SPACE 1, 윤진섭 설치 전경, 2023



(위)SPACE 2, 포리 심 설치 전경, 2023  
(아래)WINDOW PROJECT, 이명환 설치 전경,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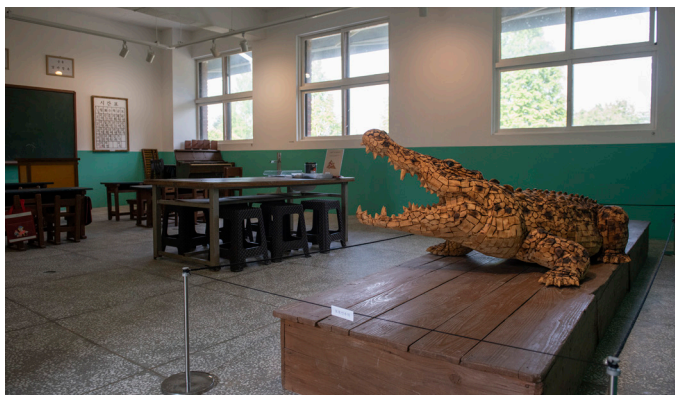


(위)SPACE 3, 임성목 설치 전경, 2023  
(아래)SPACE 3, 라디오비/이우재 설치 전경, 2023



(위)SPACE 5, 위켄드랩/뉴탑-22 설치 전경, 2023  
(아래)SPACE 5, 김동민 설치 전경, 2023





(위)SPACE 6, 정현철/김준혁 설치 전경, 2023  
(아래)SPACE 6/7, 백운호 설치 전경, 2023



(위)SPACE 5 복도, 김지용 설치 전경, 2023

(아래)SPACE 6 복도, 이혜수 설치 전경, 2023



SPACE 8, 박근용 설치 전경, 2023

## 김동인 Kim Dong In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21 器行文, 갤러리 시작, 서울

### 주요 단체전

2022 LEXUS CREATIVE MASTERS, 커넥트투, 서울

### 주요 수상

2022 LEXUS CREATIVE MASTERS AWARD 워너

### 작품 소장

양구백자 박물관, 렉서스 코리아, 한국은거레소, 멜리오라

### 도서

월간도예, 행복이 가득한집, 국립특수교육원 5, 6학년 미술 국정교과서 (나)권 수록

## 김지용 Jiyong Kim

상명대학교 생활예술학과(텍스타일아트 전공) 졸업

### 주요 개인전

2022 없어지는 것들, 없어지지 않는 것들, 안계미술관, 의성

### 주요 단체전

2022 하이브리드 : 크래프트, 코사이어티 서울숲, 서울

2022 삶-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2022 공예트렌드페어 브랜드관, 창작공방관, 코엑스, 서울

### 주요 수상

2020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텍스타일디자인 입상

2019 제주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2018 한국미술대전 현대공예 입상

### 레이턴시

2022-2023 신당창작아카데미드 13기, 14기 입주작가

## 김준혁 Kim Junhyuck

한국열린사이버대 통합예술치료학과 졸업

현 종이문화재단 북플딩아트협회장

### 주요 단체전

2021 업사이클에 광명이 비치다,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광명

2019 paper는 종이,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ART SPACE, 부산

2018 업-사이클 캠핑, 가나아트파크, 양주

2015 제13회 프랑스 비엔날레 전통예술제본, 프랑스

### 주요 수상

2022 생활용 콘테스트 특선

2019 서울시 표창

2013 국제콘텐츠디자인공모대전 특별상

2013 제1회 대한민국 장난기 발명대회 대상

### 작품 소장

청송 장난기 공화국, 서울 생활용플라자

## 뉴탭-22 Newtab-22

### 문지희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제품 디자인 석사(Master of Art) 졸업

건국대학교 공예 전공, 산업디자인 복수전공 졸업

### 최혜민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제품 디자인 석사(Master of Art) 졸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업디자인 학사 졸업

### 주요 단체전

2022 Material Collective, DDP 오픈큐레이팅 vol.21, DDP 갤러리문, 서울

2021 - 2022 Waste Age, Design Museum, 런던

2021 Milano Design week, 밀라노

2021 Craft Trend Fair, 코엑스, 서울

2021 Maison & Objet, 파리

2020 Architect@Work London, 런던

2020 PotentiAL Fair, 네덜란드

### 주요 수상

2020 Green product Award Germany

2020 Dezeen Award 2020, Sustainable Design, Longlisted

### 작품 소장

Ontario Science Centre, 토론토

### 주요 경력

2023 현대자동차 제로원 Zero'ne Sensing & Insight 초청 강의

2021 싱가포르 Design Council 'Vision of the Future' Panel Discussion

: A New Design Manifesto for a Changing World

## 라디오비 Radiob

### 심준보

경기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과 졸업  
현 Upcycle deisgn studio 라디오비 대표

### 주요 단체전

2022 CICA Art Festival 2022, CICA미술관, 김포  
2022 사유의 형태들, 웃다리문화촌, 평택  
2022 순천 에코아트페어 E.A.T,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순천  
2022 폴 어스 트럭 스토어, 한가람미술관, 서울  
2022 서울디자인 202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2021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지원 기업특별전, 수원

### 주요 수상

2021 코리아 가든쇼 작가선정, 산림청  
2020 전주벽화 트리엔날레 작가선정, 전주시  
2019 가드닝 페스티벌 모델링 전시공모 작가당선, 청주시  
2019 (H-STEEL) 아틀리에 절제공공예술프로젝트 작가선정, 현대제철/전라남도교육청/순천시청  
2019 화성31운동 100주년 청년작가 프로젝트 전시 작가선정, 화성시  
2017 포천아트밸리 라이트조각작품공모 작가선정, 포천아트밸리  
2015 경기도 디자인나눔프로젝트 전문가위원, 경기도  
2015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 아이디어연구팀 전문가연구원 최우수연구팀선정, 대구광역시  
2015 수원유람 산드레미작품공모 작가선정, 수원문화재단  
2014 평택호 소리의자공모전 작가선정, 경기관광공사  
2014 서울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장려, 서울특별시  
2014 제주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선, 제주도  
2013 부산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선, 부산광역시  
2013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특선, 경기도  
2013 굿디자인 어워드 선정, 한국디자인진흥원

## 백운호 Baek Yun Ho

한남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5 제2회 백운호 조각전, 이공갤러리, 대전  
2007 제1회 백운호 조각전, 타임월드 갤러리, 대전

### 주요 단체전

2017 오아시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7 공주 국제 미술제, 임립 미술관, 공주  
2017 마이 조각전, 세 갤러리, 대전  
2016 아트비상기획전,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2016 대전 국제 아트쇼, 대전무역전시관, 대전  
2016 전국 조각가협회전, BENZ강남점, 서울  
2016 KIAF 국제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2016 한국 조각가협회 부산시부전, 석당미술관, 부산  
2016 썸머 힐링 스토리전, 갤러리써포먼트, 서울  
2016 서울국제조각페스타, 한가람미술관, 서울

### 주요 수상

2004 제3회 대한민국 환경미술대전 특선

### 레이저니스

2013 평창 305 레이저니스, 대전

### 작품 소장

한국조폐공사, 공주시청, 영동군청, 서울 강동성심병원

### 교육 경력

2011~2014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강사 역임

## 박근용 Park Geun Yong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07 탄트릭, 북스 갤러리, 서울  
2007 탄트릭 조각 및 누드 크로키, 신타르타 갤러리, 카투만두, 네팔  
2000 얼음은 녹는다, 파밀리아 아라르티스타 밀라네세 갤러리, 밀라노

### 주요 단체전

2022 콤마게네 비엔날레, 카타, 아디야만  
2021 트빌리시 사진 축제, 비디오 파트에 영상, 트빌리시  
2019 트빌리시 영상 미술제 '오월 광주' 출품, 트빌리시  
2019 수원화성 프로젝트 생·판타스틱 시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2018 웃음, 울음, 수원시립만석전시관, 수원  
2018 알티 에고, 해움 미술관, 수원  
2018 트빌리시 사진 축제, 비디오 파트에 영상 '조지아의 자유', 트빌리시  
2018 지구에서, 라모 갤러리, 레, 라르카  
2017 수원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 2017-연대, 해움 미술관, 수원  
2017 오리지널 센스,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시카고  
2017 고색뉴뮤지엄 개관전, 뭉치 기술, 고색뉴뮤지엄, 수원  
수원2016 고색뉴뮤지엄 국제예술제, 고색뉴뮤지엄, 수원  
2015 MOA 매출국제환경예술제-교점부터, 형도, 화성시  
2010 유목민전, 신타르타 아트 갤러리, 카투만두  
2004 나는 작품을 만지러 미술관에 간다, 수원시립만석전시관, 수원  
2002 설치예술제-또하나의조망, 수원월덕클럽구장, 수원

### 작품 소장

투르키에 말리타아 넴루트 산(Dagi), 네팔 카투만두 신타르타 갤러리

## 워켄드랩 WKND Lab

### 이하린

한국예술종합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졸업

### 전은지

루체르 응용과학예술대학교(오브제 디자인 전공) 졸업

### 주요 개인전

2021 Right! Earth, 한화 갤러리, 서울

### 주요 단체전

2023 MAKERS 2, CASELLI 11-12 gallery, 밀라노  
2023 밀란 디자인 위크 2023, Cicolare, Isola Design Gallery  
2023 Collectible Fair Brussels, Curated section, 브뤼셀  
2022 공예트렌드페어, 코엑스, 서울  
2022 Cloud Walkers, 리움미술관, 서울  
2022 디자인 마이에미, 아트 바젤 2022, 바젤  
2021 서울디자인 페스티벌, 코엑스, 서울  
2021 제19회 디자인 코리아, 양재 aT센터, 서울  
2021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 전시장, 지역  
2021 중구 도심산업박람회, 을지로현대타워, 서울  
2021 TONG's VINTAGE 기묘한 흥의 만물상, 대림미술관, 서울  
2020 DDP 디자인 온라인 페어

### 주요 수상

2020 Korea Sweden Young Design Award Winner  
2020 European Product Design Award Winner  
2021 Dezeen Award Longlisted  
2021 Beyond Plastic Award Nominee  
2022 Green Product Award Winner

## 윤진섭 Yoon Jin Sup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미술사/미술비평)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미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23 예술은 심심한 물이다, 헬로우유자음, 서울  
2014 사물은 초조의 치즈를 골랐다  
(La chose chose Chose's cheese),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 주요 그룹전

2023 Happy New Year, Happy Art Issue Projects 특별전,  
Art Issue Project, 전주  
2022 TASTY A MARKET 무림의 고수,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2022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2주, 다시야생(多視野生),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공주  
2022 Internet 124 Live Performance Good Morning, Artist?,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밀양  
2022 글로벌노마드아트프로젝트-프랑스IV-몽골III, 현지 참가,  
몽골  
2022 어느 정도 예술공동체 : 부기우기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2022 Amulet 호령展-범을 깨우다 순회전, 갤러리 원, 서울,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부산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따스한 재생, 퍼포먼스 <Be Happy!  
(행복하세요!)> 발표, 재생4 스트리트, 홍천중앙시장, 홍천  
2021 김노암, 윤진섭, 유승호 시 활활잘, 로프트갤러리, 서울  
2020 글로벌노마드아트프로젝트 성과보고전, 금강자연미술센터,  
공주  
1981 현대미술워크숍전 S.T, 현실과 발언, 서울80,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 이명환 Myung Hwan Lee

프랑스 르 아브르 최상위 예술학교, 국가 최고 조형 표현 학위, Ecole  
Supérieure d'Art du Havre, (DNSEP).

### 주요 개인전

2006 'Artcycle' 고 백남준 아티스트에게 바치는 경의 퍼포먼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6 Moral Coat 퍼포먼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국립공주박물관, 공주  
2008 MOCA 찾아가는 미술관 이명환의 '루이비통 미술관'  
Project, 국립현대미술관, KIST

### 주요 단체전

2022 수원국제예술프로젝트 온새미로, 복합예술공간 111CM, 수원  
2022 로컬 관광 예술콘텐츠 제작설치전, 스탠아트마인  
레일바이 유지엄, 정선  
2021 DMZ 이후, 대지의 숨결,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20 언택트 카드 미술관 전, 강원랜드 고한을 조형물 거점 공간,  
강원도  
2020 라마스텔, 카투만두 예술위원회 미술관, 네덜  
2019 제주국제실협예술제 설치, 탐라공화국, 제주  
2018 한국행위미술 50년 기념기념전 :인디애나에 대한 경의:  
퍼포먼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18 보스턴 비엔날레5, 베스트7 선정, Atlantic Works Gallery,  
보스턴  
2017 국제 새로운 미술로서의 기억과 상상, 헤마미술관, 청주  
2014 서울빛 초롱축제, 섹션4 '라이트아트-LFO', 청계천, 서울

### 주요 수상

2003 엔프라니에비뉴 문화인선정  
1988 제19회 전국대학미술전람회 금상

## 이우재 Lee Woo Jai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교, 미술 석사(우등) 졸업, 호주  
아인드호펜 디자인 아카데미 예술학 학사 졸업, 네덜란드

### 주요 단체전

2023 Dancing Grid, Space B-E Gallery, 서울  
2022 공예트렌드페어 2022, 코엑스, 서울  
2022 RMIT Master of Fine Arts Graduation Show, 멜버른  
2022 사이에서: Feather and Constellation, 한지문화산업센터, 서울  
2022 Dear My Earth, Sisterhood, Alemtongtan, 동탄  
2022 It's our F\*\*\*ing Backyard, Design Material Futures,  
암스테르담 시립 미술관, 암스테르담  
2022 Re pair : Re+pair, Contributors, 아모레 성수, 서울  
2021 투모로우 빈티지 팝업, COACH Korea, 서울  
2021 STUDIO I by IONIQ, Pairing Table, 서울  
2020 Natural Object: Jayeomul Part 2, 위클리캐비닛, 서울  
2020 Paper is, Space B-E Gallery, 서울  
2019 Tracing Borders, FAC, 에인트호번  
2018 The Way We Face Leather, 더치 디자인 워크 2018  
2018 The Materialists presents Paper Extended,  
밀라노 가구 박람회 2018, 밀라노  
2018 Collect with Mint Gallery, Saatchi Gallery, 런던  
2018 OBJECT Rotterdam 2018, 로테르담  
2018 Embracing Exchange, 쉐핀 디자인 워크, 쉐핀

### 주요 경력

2020 OIMU x Woojai 인센스 홀더, OIMU, 서울  
2020 Lynk&Co Amsterdam Store, Space Projects, 암스테르담  
2020 COS x Woojai, COS Store, 갤러리백화점 광고점, 광고

### 작품 소장

Vitra Design Museum

## 이혜수 Hyesoo Lee

홍익대학교 전문디자인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졸업  
어썬션 국제 대학교 경영학 졸업, 태국  
arcmind studio 운영

### 주요 개인전

2014 I was in Paris, 토비아스 갤러리, 서울

### 주요 단체전

2023 Now for Zero-waste-함께 하는 방법, 서울생활용품라자, 서울  
2022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코엑스, 서울  
2022 Greenery Dream, 신세계갤러리 대구, 대구  
2021 제19회 디자인 코리아, 양재 a센터, 서울  
2021 RE:Saesang,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2021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전, 토포하우스, 서울

### 주요 경력

2022 - 2023 S/S 파리 패션워크, 한복브랜드 단하 컬렉션 업사이클링  
액세서리 협찬  
2022 (사)설설 협업 Go-on 컬렉션 화분 제작 프로젝트  
2021 네 손으로 만드는 새 활용, 생활용 교육 키트 3종 제작,  
서울생활용품라자  
2021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 장관 포럼, 아트컬렉션 라벨링 & 테이블  
사인 오브제 제작

### 교육 경력

2019 동물 친구야 사라지자, 업사이클링 원데이클래스,  
서울생활용품라자

## 임성목 Lim Sungmook

홍익대학교 프로덕트디자인전공 졸업

### 주요 단체전

2023 Roplastic Prize, Rosana Orlandi Gallery, 밀라노  
2023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코엑스, 서울  
2023 Repeat, Repeat.,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2022 디자인코리아 2022, aT 센터, 서울  
2022 서울 디자인 2022,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울  
2022 부산디자인워크, 벡스코, 부산  
2022 PROCESSive,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2021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코엑스, 서울  
2020 Paperworld, Messe Frankfurt,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2019 세종시 한국청년작가 초대전, 성수장, 세종  
2019 풀값 전, 지아가가 갤러리, 서울  
2019 도쿄 기프트쇼, Aomi Exhibition Halls, 도쿄  
2019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울  
2017 텐트 디자인 런던, 런던  
2017 메종앤오브제 파리, 파리  
2017 호미 소비재 박람회 밀라노, 밀라노

### 주요 수상

202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2021 DDP 디자인페어 서울시장상  
2020 ddi 디자인이노베이션럼 수상  
2019 인덱스 어워드 선정  
2017 Kotra 소비재 융합제품 경진대회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  
2016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 포리 심 Fori Sim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23 Happy Re:Construction Day, 얼터사이트계선, 서울  
2022 RE-HI, 갤러리포인트, 서울  
2018 Happy Re:Birth Day, 신한갤러리 광화문, 서울

### 주요 단체전

2022 Greenery Dream, 신세계갤러리, 대구  
2021 We Do Green Art, SEDEX SK하이닉스, 코엑스, 서울  
2020 Korean Upcycle Design Week, Incinque Open Art Monti, 로마  
2019 Korean Upcycle Art&Design Frontier, Designers' open, Kongress Halle am Zoo, 라이프치히  
2019 This is NOT a TOY, 신세계갤러리광주, 광주  
2019 업사이클 모델하우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

### 주요 수상

2016 Art-236 통상  
2015 6th Epicase Art&Illustration Competition 2015 대상

### 주요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외래교수(시각디자인 학과) 역임  
수퍼빈 주식회사 브랜딩실 이사(전)  
삼성전자 무선디자인 사업부 디자이너(전)

## 정현철 Jung Hyunchul

건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제일기획 아트디렉터 근무

### 주요 단체전

2022 사유의 형태들, 옷다리문화촌, 평택  
2022 팬데믹의유산, 업사이클작품이되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  
2022 판교아트뮤지엄, 현대백화점, 판교  
2019 ART SHOW, LA컨벤션센터, LA, 미국  
2018 벡스코 아트페어, 벡스코, 부산  
2018 Selected Group Exhibition, Vision, Jersey-city 시청, 뉴저지 주, 미국

### 그 외

아트에세이 '희망은 버려지지 않는다' 출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위촉장 제작

# 사유의 형태들 2023

## The Forms of Thought 2023

발행인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발행처 평택문화원

발행일 2023.6.23.

주최 주관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전시기획총괄 웃다리문화촌장 조혜경

전시큐레이터 박송이

전시운영 강수진, 김한솔

도움주신 분 배종욱, 김유현

© Complex Cultural Space WOODDALI CULTURE VILLAGE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rom of by  
any means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from Complex Cultural Space  
WOODDALI CULTURE VILLAGE

### 복합문화공간 웃다리문화촌

(17788)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438-14

관람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관람문의 031,667,0011

Complex Cultural Space

### Wootdali Culture Village

(17788) 438-14, Yongsogeumgak-ro, Seotan-myeon,  
Pyeongtaek-si, Gyeonggi-do, Korea

Opening Hours 09:00-18:00 Closed on Mondays

Inquiry +82.031,667,0011

웃다리문화촌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